

경기 안양 8경 중 제2경 '삼막사 남녀근석' 만지면서 자식 원하면 효험 있다고 전해져



삼막사 남녀근석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삼성산에 있는 삼막사(三幕寺)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의 말사이다.

1천300여 년 전 신라 문무왕(文武王) 17년(677)에 원효, 의상, 윤필 등 세 성인이 암자를 지어 정진한 것이 삼막사의 근본으로 전해진다. 삼성산(三聖山)이라는 이름도 이때 만들어졌다고 한다.

원효가 창건하고 신라말 도선이 중건하여 관음사라 개칭했는데, 고려의 태조가 중수하여 삼막사라 한다는 설도 있다.

삼막사에 기면 조선 후기 건축양식인 망해루와 명부전(경기도 유형문화재 자료 제60호)을 볼 수 있다.

또 고려 시대에 세워진 삼막사 삼층석탑(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2호)과 조선 숙종 때 건립된 사적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5호), 조선 후기의 삼막사 마애삼존불(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4호)과 삼귀자(三龜字), 감로정(甘露井) 등 다수의 비지정 문화재가 삼막사의 역사를 보여준다.

신기한 자연 예술품으로 안양 8경 중 제2경으로 꼽히는 남녀

근석(男女根石)은 삼막사 칠성각 앞에 있는데 1985년 6월 28일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다. 풍화된 2개의 자연암석 모양이 남녀 성기(性器)의 모습과 닮았다고 하여 남녀근석이라고 부르고 있다. 남근과 여근의 거리는 2m이고, 남근의 높이는 1.5m, 여근의 높이는 1.1m다.

속전(俗傳)에는 신라 문무왕 17년(677)에 원효대사가 삼막사를 창건하기 전부터 이 바위를 토속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했다고 한다. 이 바위를 만지면서 자식을 원하고, 출산(出產)과 일가(一家)의 번영, 무병 및 장수를 빌면 효험이 있다고 전한다. 4월 초파일과 칠월칠석날 등에는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이러한 성기숭배 사상은 다산 및 풍요를 기원하는 민간신앙으로 선사시대부터 행해져 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동남아 지역과 일본에도 산재해 있다. ♡



삼막사



삼막사 삼귀자

안양시민과 함께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안양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안양



모두 함께 잘 사는 안양



깨끗하고 안전한 안양



← ANYANG

고르게 발전하는 안양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